

1. 정지용 - <춘설>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우수절(雨水節)*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새삼스레 눈이 덮인 멧부리와

서늘옅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얼음 금 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웃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옹송그리고* 살아난 양이

아아 꿈 같기에 설어라.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움짚 아니 기뻐*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햇웃*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 정지용, 「춘설(春雪)」

*우수절: 입춘과 경칩 사이의 절기인 우수로, '봄비로 물기운이 가득한 때'라는 뜻임. 양력 2월 18일 경.

*옹송그리고: 춥거나 두려워 몸을 궁상맞게 몹시 움츠려 작게 하고.

*움짚 아니 기뻐: 움직이지 않던.

*햇웃: 안에 숨을 두어 지은 겨울웃.

2. 김현승 - <눈물>

더러는

옥토(沃土)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흙도 티도,

금 가지 않은

나의 전체(全體)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울 제,

나의 가장 나아중 지니인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 김현승, 「눈물」

3. 김승희 - <배꼽을 위한 연가 5>

인당수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 저는 살아서 시를 짓겠습니다.

공양미 삼백 석을 구하지 못하여
당신이 평생을 어둡더라도
결코 인당수에 빠지지는 않겠습니다.
어머니, / 저는 여기 남아 책을 보겠습니다.

나비여,
나비여,
애벌레가 나비로 날기 위하여
누에고치를 버리는 것이
죄입니까?
하나의 알이 새가 되기 위하여
껍질을 부수는 것이
죄일까요?

그 대신 점자책을 사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 점자 읽는 법도 가르쳐 드리지요.

우리의 삶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외국어와 같은 것
어디에도 인당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 우리는 스스로 눈을 떠야 합니다.

- 김승희, 「배꼽을 위한 연가 5」

4. 김소월 - <님의 노래>

그러운 우리 님의 많은 노래는
언제나 제 가슴에 젖어 있어요

긴 날을 문밖에서 서서 들어도
그러운 우리 님의 고운 노래는
해 지고 저물도록 귀에 들려요
밤들고 잠들도록 귀에 들려요

고이도 흔들리는 노랫가락에
내 잠은 그만이나 깊이 들어요
고적한 잠자리에 홀로 누워도
내 잠은 포스근히 깊이 들어요

그러나 자다 깨면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려요
들으면 듣는 대로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잊고 말아요

- 김소월, 「님의 노래」

5. 한용운 - <수(繡)의 비밀>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심의(深衣)*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러옷도 지었습니다.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뿐입니다.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고
마는,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수를 놓으
려면,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
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많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 한용운, 「수(繡)의 비밀」

*심의: 신분이 높은 선비들이 입던 옷.

6. 박목월 - <윤사월>

송화가루 날리는
외판 봉우리

윤사월 해 길다
꾀꼬리 울면

산지기 외판집
눈먼 처녀사

문설주에 귀 대이고
엳듣고 있다

- 박목월, 「윤사월」

7. 윤동주 - <자화상>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
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
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
이가 있습니다.

- 윤동주, 「자화상」

8. 백석 - <두보(杜甫)나 이백(李白)같이>

오늘은 정월 보름이다

대보름 명절인데

나는 멀리 고향을 나서 남의 나라 쓸쓸한 객고에
있는 신세로다

옛날 두보(杜甫)나 이백(李白) 같은 이 나라의 시
인도

먼 타관에 나서 이날을 맞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오늘 고향의 내 집에 있는다면

새 옷을 입고 새 신도 신고 떡과 고기도 역병* 먹
고

일가친척들과 서로 모여 줄거이 웃음으로 지낼 것
이련만

나는 오늘 때 묻은 입든 옷에 마른 물고기 한 토막
으로

혼자 외로이 앉아 이것저것 쓸쓸한 생각을 하는 것
이다

옛날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이날 이렇게 마른 물고기 한 토막으로 외로이 쓸쓸
한 생각을 한 적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이제 어느 먼 외진 거리에 한 고향 사람의 조
그마한 가업집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이 집에 가서 그 맛스러운 떡국이라도 한 그릇 사
먹으리라 한다

우리네 조상들이 먼먼 옛날로부터 대대로 이날엔
오래히 그러하며 오듯이

먼 타관에 난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
도

이날은 그 어느 한 고향 사람의 주막이나 반관(飯
館)*을 찾아가서

그 조상들이 대대로 하든 본대로 원소(元宵)*라는
떡을 입에 대며

스스로 마음을 느꾸어* 위안하지 않았을 것인가

그러면서 이 마음이 맑은 옛 시인들은

먼 훗날 그들의 먼 훗자손들도

그들의 본을 따서 이날에는 원소를 먹을 것을

외로이 타관에 나서도 이 원소를 먹을 것을 생각하
며

그들이 아득하니 슬펐을 듯이

나도 떡국을 놓고 아득하니 슬플 것이로다

아, 이 정월 대보름 명절인데

거리에는 오독독이* 탕탕 터지고 호궁(胡弓)* 소리
벨벨 높아서

내 쓸쓸한 마음엔 자주 이 나라의 옛 시인들이 그
들의 쓸쓸한 마음들이 생각난다

내 쓸쓸한 마음은 아마 두보나 이백 같은 사람들의
마음인지도 모를 것이다

아무려나 이것은 옛 투의 쓸쓸한 마음이다

- 백석, 「두보(杜甫)나 이백(李白)같이」

*억병: 매우 많이.

*반관: 작은 중국 식당.

*원소: 중국에서 정월 대보름날 먹는 새알 모양의
전통 음식.

*느꾸어: '긴장이나 흥분을 풀어'라는 뜻의 평북 방
언.

*오독독이: 오독독기. 불꽃놀이에 쓰는 딱총의 하
나. 화약 심지에 불을 붙이면 터지는 소리를 내면
서 불꽃이 떨어진다.

*호궁: 중국의 전통 현악기의 하나. 우리나라의 해
금과 비슷하다.

9. 고정희 -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무덤에 잠드신 어머니는

선산 뒤에 큰 여백을 걸어 두셨다

말씀보다 큰 여백을 걸어 두셨다

석양 무렵 등산에 올라가

적송밭 그 여백 아래 앉아 있으면

서울에서 묻혀 온 온갖 잔소리들이

방생의 시냇물 따라

들 가운데로 흘러흘러 바다로 들어가고

바다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 것은 뒤에서

팽팽한 바람이 멧새의 발목을 툭, 치며

다시 더 큰 여백을 일으켜

막막궁산 오솔길로 사라진다

오 모든 사라지는 것들 뒤에 남아 있는

등근 여백이여 뒤편이여

모든 부재 뒤에 떠오르는 존재여

여백이란 쓸쓸함이구나

쓸쓸함 또한 여백이구나

그러하여 여백이란 탄생이구나

나도 너로부터 사라지는 날

내 마음의 잡초 다 스러진 뒤

네 사립에 걸린 노을 같은, 아니면

네 발 아래로 쟁쟁쟁 흘러가는 시냇물 같은

고요한 여백으로 남고 싶다

그 아래 네가 앉아 있는

- 고정희,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10. 이육사 - <꽃>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나리잡는 그 땅에도
오히려 꽃은 발갛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어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 속 깊이 꽃맹아리가 움작거려
제비 떼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어!

한바다 복판 용솟음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 성(城)에는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

- 이육사, 「꽃」

11. 문정희 - <한계령을 위한 연가>

한겨울 못 잊을 사랑하고
한계령쯤을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
뉴스는 다투어 수십 년 만의 풍요를 알리고
자동차들은 뒤통거리며
제 구멍들을 찾아가느라 법석이지만
한계령의 한계에 못 이긴 척 기꺼이 묶였으면

오오, 눈부신 고립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인 동화의 나라에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면 풍요는
조금씩 공포로 변하고, 현실은
두려움의 색채를 드러내기 시작하지만
헬리콥터가 나타났을 때에도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는 않으리

헬리콥터가 눈 속에 갇힌 야생조들과
짐승들을 위해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시퍼렇게 살아 있는 젊은 심장을 향해
까아만 포탄을 뿌려 대던 헬리콥터들이
고라니나 꿩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자비롭게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나는 결코 웃자락을 보이지 않으리

아름다운 한계령에 기꺼이 묶여
난생 처음 짧은 축복에 몸 둘 바를 모르리

- 문정희, 「한계령을 위한 연가」

12. 조지훈 - <산상(山上)의 노래>

높으디높은 산마루
넓은 고목(古木)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는가.

아아 이 아침
시들은 꺾줄의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이제 눈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래 펼던 샛별아 숨으라.

환히 트이는 이마 우
떠오르는 햇살은
시월상달의 꿈과 같고나.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새들 줄거리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양*하랴.

여기 높으디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 조지훈, 「산상(山上)의 노래」

*사양: 겸손하여 받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함.
또는 남에게 양보함.

13. 신석정 - <꽃뎨불>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춥하였다.

달빛이 흠사 비 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는 혈어진 성터를 헤매이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벼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멀리 떠나 버린 벼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 버린 벼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맘을 팔아 버린 벼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서른여섯 해가 지나갔다

다시 우려투보는 이 하늘에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니 언덕 꽃뎨불에 아늑히 안겨 보리라

- 신석정, 「꽃뎨불」

14. 김수영 - <사령(死靈)>

.....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어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 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육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 김수영, 「사령(死靈)」

15. 정호승 -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나는 왜 아침 출근길에
구두에 질편하게 오줌을 싸 놓은
강아지도 한 마리 용서하지 못하는가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구두를 신는 순간
새로 갈아 신은 양말에 축축하게
강아지의 오줌이 스며들 때
나는 왜 강아지를 향해
이 개새끼라고 소리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개나 사람이나 풀잎이나
생명의 무게는 다 똑같은 것이라고
산에 개를 데려왔다고 시비를 거는 사내와
먹살잡이까지 했던 내가
왜 강아지를 향해 구두를 내던지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는데
나는 한 마리 강아지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윤동주 시인은 늘 내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밥만 많이 먹고 강아지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생의 순례자가 될 수 있을까
강아지는 이미 의자 밑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다
오늘도 강아지가 먼저 나를 용서할까 봐 두려워라

- 정호승,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16. 신동엽 -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네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一生)을 살아갔다.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쇠 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댁아라, 사람들아
네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리 덮은 쇠 항아리.

아침저녁
네 마음속 구름을 닦고
티 없이 맑은 영원(永遠)의 하늘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畏敬)을
알리라

아침저녁
네 머리 위 쇠 항아리를 찢고
티 없이 맑은 구원(久遠)의 하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憐憫)을
알리라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아모리며.

서럽게
아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려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 신동엽,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17. 기형도 - <홀린 사람>

사회자가 외쳤다
여기 일생 동안 이웃을 위해 산 분이 계시다
이웃의 슬픔은 이분의 슬픔이었고
이분의 슬픔은 이글거리는 빛이었다
사회자는 하늘을 걸고 맹세했다
이분은 자신을 위해 푸성귀 하나 심지 않았다
눈물 한 방울도 자신을 위해 흘리지 않았다
사회자는 흐느꼈다
보라, 이분은 당신들을 위해 청춘을 버렸다
당신들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
그분은 일어서서 흐느끼는 사회자를 제지했다
군중들은 일제히 그분에게 박수를 쳤다
사내들은 울먹였고 감동한 여인들은 실신했다
그때 누군가 그분에게 물었다, 당신은 신인가
그분은 목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당신은 유명인가, 목소리가 물었다
저 미치광이를 끌어내, 사회자가 소리쳤다
사내들은 달려갔고 분노한 여인들은 날뛰었다
그분은 성난 사회자를 제지했다
군중들은 일제히 그분에게 박수를 쳤다
사내들은 울먹였고 감동한 여인들은 실신했다
그분의 답변은 군중들의 아우성 때문에 들리지 않았다

- 기형도, 「홀린 사람」

18. 박남수 - <종소리>

나는 떠난다. 청동(靑銅)의 표면에서
일제히 날아가는 진폭의 새가 되어
광막한 하나의 울음이 되어
하나의 소리가 되어.

인종(忍從)은 끝이 나는가.
청동의 벽에
‘역사’를 가두어 놓은
칠혹의 감방에서.

나는 바람에 실리어
들에서는 푸름이 된다.
꽃에서는 웃음이 되고
천상에서는 약기가 된다.

먹구름이 깔리면
하늘의 꼭지에서 터지는
뇌성(雷聲)이 되어
가루 가루 가루의 음향(音響)이 된다.

- 박남수, 「종소리」

19. 황인숙 -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이다음에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윤기 짙은 호르는 까망 얼룩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사뿐사뿐 펴 때면 커다란 까치 같고
 공처럼 둥글릴 줄도 아는
 작은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나는 툇마루에서 졸지 않으리라.
 사기그릇의 우유도 핥지 않으리라.
 가시덤불 속을 누벼 누벼
 너른 별판으로 나가리라.
 거기서 들쥐와 뛰어놀리라.
 배가 고프면 살금살금
 참새 떼를 덮치리라.
 그들은 놀라 후닥닥 달아나겠지.
 아하하하
 폴짝폴짝 뒤따르리라.
 꼬마 참새는 잡지 않으리라.
 할딱거리는 고놈을 앞발로 툇 건드려
 놀래 주기만 하리라.
 그리고 곧장 내달아
 제일 큰 참새를 잡으리라.

이윽고 해는 기울어
 바람은 스산해지겠지.
 들쥐도 참새도 가 버리고
 어두운 별판에 홀로 남겠지.
 나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어둠을 핥으며 낚가리를 찾으리라.
 그 속은 아늑하고 짙단 냄새 훈훈하겠지.
 훌쩍 뛰어올라 깊이 웅크리리라.
 내 잠자리는 달빛을 받아
 은은히 빛나겠지.
 혹은 거센 바람과 함께 찬비가
 빈 별판을 쓰다닐지도 모르지.
 그래도 난 털끝 하나 적시지 않을걸.
 나는 꿈을 꾸리라.
 놓친 참새를 쫓아
 밝은 들판을 내딛는 꿈을.

- 황인숙,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20. 황동규 - <풍장(風葬) 1>

내 세상 뜨면 풍장시켜 다오
 섭섭하지 않게
 웃은 입은 채로 전자시계는 가는 채로
 손목에 달아 놓고
 아주 춥지는 않게
 가죽 가방에 넣어 전세 택시에 싣고
 군산(群山)에 가서
 검색이 심하면
 곰소쯤에 가서
 통통배에 옮겨 실어 다오

가방 속에서 다리 오그리고
 그러나 편안히 누워 있다가
 선유도 지나 무인도 지나 통통 소리 지나
 배가 육지에 허리 대는 기척에
 잠시 정신을 잃고
 가방 벗기우고 옷 벗기우고
 무인도의 늦가을 차가운 햇빛 속에
 구두와 양말도 벗기우고
 손목시계 부서질 때
 남몰래 시간을 떨어트리고
 바람 속에 익은 붉은 열매에서 툇 툇 핏기는 씨들을
 무연히 안 보이듯 바라보며
 살을 말리게 해 다오
 어금니에 박혀 녹스는 백금(白金) 조각도
 바람 속에 빛나게 해 다오

바람 이불처럼 덮고
 화장(化粧)도 해탈(解脫)도 없이
 이불 여미듯 바람을 여미고
 마지막으로 몸의 피가 다 마를 때까지
 바람과 놀게 해 다오.

- 황동규, 「풍장(風葬) 1」

21. 유하 - <빠삐용 - 영화 사회학>

아침 티브이에 난데없는 표범 한 마리
물난리의 복세통을 틈타 서울 대공원을 탈출했다
수재에 수재(獸災)가 겹쳤다고 했지만, 일순 마주친

우리 속 세 마리 표범의 우울한 눈빛이 서늘하게
내 가슴 깊이 박혀 버렸다 한순간 바람 같은 자유가

무엇이길래, 잡히고 또 잡혀도
파도의 아가리에 몸을 던진 빠삐용처럼
총알 빗발칠 폐허의 산속을 택했을까
평온한 동물원 우리 속 그냥 남은 세 명의 드가
그러나 난 그들을 욕하지 못한다
빠삐용, 난 여기서 감자나 심으며 살래
드가 같은 마음이 있는 곳은 어디든
동물원 같은 공간이 아닐까
친근감 넘치는 검은 볼테 안경의 드가를 생각하는
데

저녁 티브이 뉴스 화면에
사살당한 표범의 시체가 보였다
거봐, 결국 죽잖아!

티브이 우리 안에 갇혀 있는,
내가 드가?

- 유하, 「빠삐용 - 영화 사회학」

22. 신경림 -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

산비알*에 돌발에 저절로 나서
저희들끼리 자라면서
재재발거리고 떠들어 쌓고
밀고 당기고 간지럼질도 시키고
시새우고 토라지고 다투고
시든 앞 생기면 서로 떼어 주고
아픈 곳은 만져도 주고
끌어안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고
이렇게 저희들끼리 자라서는
늙으면 동무나무 썩은 가질랑
슬쩍 잘라 주기도 하고
세월에 꿈고 터진 상처는
긴 허로 할아 주기도 하다가
열매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머리와 어깨와 다리에
가지와 줄기에
주렁주렁 달았다가는
별 많은 밤을 골라 그것들을
하나하나 떼어 온 고을에 뿌리는
우리 동네 늙은 느티나무들

- 신경림,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

*산비알: '산비탈'의 방언.

23. 고재중 - <들길에서 마을로>

해거름, 들길에 선다. 기엄기엄 산 그림자 내려오고
길센의 망초꽃들 몰래 흔들린다. 눈물방울 같은
점점들, 이제는 벼 끝으로 올라가 수정 방울로 맺
힌다. 세상에 허투른 것은 하나 없다. 모두 새 몸
으로 태어나니, 오늘도 쏙독새는 저녁 들을 흔들고
그 울음으로 벼들은 쪽쪽쪽쪽 자란다. 이때쯤 포랑
물에 sap을 씻는 노인, 그 한 생애의 백발은 나의
꿈. 그가 문득 서천으로 고개를 든다. 거기 불새가
복새길을 치니 내일도 뽕뽕하겠다. 뽕뽕할수록 더
욱 치열한 벼들, 이윽고는 포랑물 소리 크게 들려
더욱더 푸르러진다. 이쯤에서 대숲 둘러친 마을 쪽
을 안 돌아볼 수 없다. 아직도 몇몇 집에서 오르는
연기. 저 길긴 전통이, 저 오롯한 기도가 거기 밤
꽃보다 환하다. 그래도 밤꽃 사태 난 밤꽃 향기.
그 싱그러움에 이르러선 문득 들이 넓어진다. 그
넓어짐으로 난 아득히 안 보이는 지평선을 듣는다.
부듯하다. 이 부듯함은 또 어찌려고 웬 쏙독새 울
음까지 불러내니 아직도 참 모르겠다, 앞 강물조차
시리게 우는 서러움이다. 하지만 이제 하루 여미며
저 노인과 나누고 싶은 탁배기 한 잔. 그거야말로
금방 뜬 개밥바라기 별보다도 고즈넉하겠다. 길은
어디서나 열리고 사람은 또 스스로 길이다. 서늘하
고 뜨겁고 교교하다. 난 아직도 들에서 마을로 내
려서는 게 좋으나, 그 어떤 길엔들 노래 없으랴.
그 노래가 세상을 푸르게 밝히려.

- 고재중, 「들길에서 마을로」

24. 나희덕 -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
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
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어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
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
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25. 송수권 - <등꽃 아래서>

한껏 구름의 나들이가 보기 좋은 날
 등나무 아래 기대어 서서 보면
 가닥가닥 꼬여 냉쿨져 뻗는 것이
 참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다
 철없이 주걱주걱 흐르던 눈물도 이제는
 잘게 부서져서 구슬 같은 소리를 내고
 슬픔에다 기쁨을 반반씩 버무린 색깔로
 연등 날 지등(紙燈)의 불빛이 흔들리듯
 내 가슴에 기쁨 같은 슬픔 같은 것의 물결이
 반반씩 한꺼번에 녹아 흐르기 시작한 것은
 평발 밑으로 처져 내린 등꽃 송이를 보고 난
 그 후부터다

밀뿌리야 절제 없이 뻗어 있겠지만
 아랫도리의 두어 가닥 튼튼한 줄기가 꼬여
 큰 등치를 이루는 것을 보면
 그렇다 너와 내가 자꾸 꼬여 가는 그 속에서
 좋은 꽃들은 피어나지 않겠느냐?

또 구름이 내 머리 위 평발을 밟고 가나 보다
 그러면 어느 문갑 속에서 파란 옥빛 구슬
 꺼내 드는 은은한 소리가 들린다.

- 송수권, 「등꽃 아래서」

26. 서정주 - <무등을 보며>

가난이야 한낱 남루(襤褸)에 지나지 않는다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맷빛의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여름 산 같은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야 다 가
 릴 수 있으랴

청산(靑山)이 그 무릎 아래 지란(芝蘭)을 기르듯
 우리는 우리 새끼들을 기를 수밖에 없다
 목숨이 가다가다 농울쳐 휘어드는
 오후(午後)의 때가 오거든
 내외(內外)들이여 그대들도
 더러는 앓고
 더러는 차라리 그 곁에 누워라

지어미는 지아비를 물끄러미 우러러보고
 지아비는 지어미의 이마라도 짚어라

어느 가시덤불 속 구렁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늘 옥(玉)돌같이 호젓이 문혔다고 생각할
 일ियो
 청태(靑苔)라도 자욱이 끼일 일인 것이다.

- 서정주, 「무등을 보며」

27. 김광규 - <상행>

가을 연기 자욱한 저녁 들판으로
 상행 열차를 타고 평택을 지나갈 때
 흔들리는 차창에서 너는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지 말아 다오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판을 벌이는
 낯익은 얼굴들이 네 곁에 있지 않느냐
 황혼 속에 고향치는 원색의 지붕들과
 잠자리처럼 파들거리는 TV 안테나들
 흥미 있는 주간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여 다오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 같은
 심야 방송이 잠든 뒤의 전파 소리 같은
 듣기 힘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 다오
 확성기마다 울려 나오는 힘찬 노래와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는 얼마나 경쾌하
 나
 예부터 인생은 여행에 비유되었으니
 맥주나 콜라를 마시며
 즐거운 여행을 해 다오
 되도록 생각을 하지 말아 다오
 놀라울 때는 다만
 <아!>라고 말해 다오
 보다 긴 말을 하고 싶으면 침묵해 다오
 침묵이 어색할 때는
 오랫동안 가문 날씨에 관하여
 아르헨티나의 축구 경기에 관하여
 성장하는 GNP와 증권 시세에 관하여
 이야기해 다오
 너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 김광규, 「상행」

28. 박봉우 - <나비와 철조망>

지금 저기 보이는 시푸런 강과 또 산을 넘어야 진
 중일을 벌일 없이 보낸 것이 된다. 서녘 하늘은
 장밋빛 무늬로 타는 큰 눈의 창을 열어..... 지친 날
 개를 바라보며 서로 가슴 타는 그러한 거리에 숨이
 흐르고.

모진 바람이 분다. 그런 속에서 피비린내 나게 싸
 우는 나비 한 마리의 생채기. 첫 고향의 꽃밭에 마
 즈막까지 의지하려는 강렬한 바람의 향기였다.

앞으로도 저 강을 건너 산을 넘으려면 몇 <마일>은
 더 날아야 한다. 이미 날개는 피에 젖을 대로 젖고
 시린 바람이 자꾸 붙어 간다 목이 빠삭 말라 버리
 고 숨결이 가쁜 여기는 아직도 싸늘한 적지.

벽, 벽..... 처음으로 나비는 벽이 무엇인가를 알며
 피로 적신 날개를 가지고도 날아야만 했다.
 바람은 다시 분다 얼마쯤 날으면 아방(我方)의 파
 시하고 슬픈 철조망 속에 안길,

이런 마즈막 <꽃밭>을 그리며 숨은 아직 끝나지 않
 았다 어설픈 표시의 벽. 기(旗)여.....

- 박봉우, 「나비와 철조망」

29. 구상 - <초토의 시 8 - 적군 묘지 앞에서>

오호, 여기 줄지어 누웠는 녀들은
눈도 감지 못하였겠구나.

어제까지 너희의 목숨을 겨워
방아쇠를 당기던 우리의 그 손으로

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를 추려
그래도 양지바른 두메를 골라
고이 파묻어 폐마져 입혔거니
죽음은 이렇듯 미움보다도 사랑보다도
더 너그러운 것이로다.
이곳서 나와 너희의 녀들이

돌아가야 할 고향 땅은 삼십(三十) 리면
가로막히고

무인공산의 적막만이
천만군 나의 가슴을 여누르는데

살아서는 너희가 나와
미움으로 맺혔건만
이제는 오히려 너희의
풀지 못한 원한이 나의
바람 속에 깃들어 있도다.

손에 닿을 듯한 봄 하늘에
구름은 무심히도 / 북(北)으로 흘러가고

어디서 울려오는 포성 몇 발
나는 그만 이 은원(恩怨)의 무덤 앞에
목 놓아 버린다.

- 구상, 「초토의 시 8 - 적군 묘지 앞에서」

30. 이용악 - <오랑캐꽃>

— 긴 세월을 오랑캐와의 싸움에 살았다는 우리의
머언 조상들이 너를 불러 '오랑캐꽃'이라 했으니 어
찌 보면 너의 뒷모양이 머리채를 드리운 오랑캐의
뒷머리와도 같은 까닭이라 전한다 —

아낙도 우두머리도 돌볼 새 없이 갔단다
도래새*도 텃집도 버리고 강 건너로 쫓겨 갔단다
고려 장군님 무지무지 쳐들어와
오랑캐는 가랑잎처럼 굴러갔단다

구름이 모여 골짜 골짜를 구름이 흘러
백 년이 몇백 년이 뒤를 이어 흘러갔나

너는 오랑캐의 피 한 방울 받지 않았건만
오랑캐꽃
너는 돌가마도 털메투리*도 모르는 오랑캐꽃
두 팔로 햇빛을 막아 줄게
울어 보렴 목 놓아 울어나 보렴 오랑캐꽃

이용악, 「오랑캐꽃」

*도래새: 빙 돌아서 흐르는 새물.

*메투리: '미투리'의 방언. 삼이나 노 따위로 짚신
처럼 삼은 신.

31. 김용택 - <섬진강 1>

가문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퍼가도 퍼가도 전라도 싹틔줄 같은
 개울물들이 꿈기지 않고 모여 흐르며
 해 저물면 저무는 강변에
 쌀밥 같은 토끼풀꽃,
 숯불 같은 자운영꽃 머리에 이어 주며
 지도에도 없는 동네 강변
 식물도감에도 없는 풀에
 어둠을 끌어다 죽이며
 그을린 이마 흰하개
 꽃등도 달아 준다
 흐르다 흐르다 목메이면
 영산강으로 가는 물줄기를 불러
 뱀 으스스하게 그리워 얼싸안고
 지리산 뭉툭한 허리를 감고 돌아가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섬진강물이 어디 몇 놈이 달려들어
 퍼낸다고 마를 강물이더냐고,
 지리산이 저문 강물에 얼굴을 씻고
 일어서서 꺾꺾 웃으며
 무등산을 보며 그렇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노을 떠 무등산이 그렇다고 흰한 이마 끄덕이는
 고갯길을 바라보며
 저무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어디 몇몇 애비 없는 후레자식들이
 퍼간다고 마를 강물인가를.

- 김용택, 「섬진강 1」

32. 오장환 - <성탄제>

산 밑까지 내려온 어두운 숲에
 물이꾼의 날카로운 소리는 들려오고,
 쫓기는 사슴이
 눈 위에 흘린 따뜻한 핏방울.

꿀짜기와 비탈을 따라 내려며
 넓은 언덕에
 밤 이슬이 햇불은 꺼지지 않는다.

못짐승들의 등 뒤를 쫓아
 며칠씩 산속에 잠자는 포수와 사냥개,
 나 어린 사슴은 보았다
 오늘도 물이꾼이 메고 오는
 표범과 늑대.

어미의 상처를 입에 대고 핥으며
 어린 사슴이 생각하는 것
 그는
 어두운 골짜기에 밤에도 잠들 줄 모르며 솟는 새과
 깊은 골을 넘어 눈 속에 하얀 꽃 피는 약초.

아슬한 참으로 아슬한 곳에서 쇠북 소리 울린다.
 죽은 이로 하여금
 죽는 이를 묻게 하라.

길이 돌아가는 사슴의
 두 뺨에는
 맑은 이슬이 내리고
 눈 위엔 아직도 따뜻한 핏방울.....

- 오장환, 「성탄제」

33. 김선우 - <깨끗한 식사>

어떤 이는 눈망울 있는 것들 차마 먹을 수 없어 채식주의자가 되었다는데 내 접시 위의 풀들 깊고 말간 천 개의 눈망울로 뵈히 나를 쳐다보기 일쑤, 이고요한 사냥감들에도 핏물 자박거리고 꿈틀거리며 욕망하던 뒤편 있으니 내 앓은 접시나 그들 앓은 접시나 매일반. 천년 전이나 만년 전이나 생식을 할 때나 화식을 할 때나 육식이나 채식이나 매일반.

문제는 내가 떨림을 잃어 간다는 것인데, 일테면 만년 전의 내 할아버지가 알락고리암사슴의 목을 돌도끼로 내려치기 전, 두렵고 고마운 마음으로 울리던 기도가 지금 내게 없고 (시장에도 없고) 내 할머니들이 돌칼로 어린 죽순 밑동을 끊어 내는 순간, 고맙고 미안해하던 마음의 떨림이 없고 (상품과 화폐만 있고) 사뭇 괴로운 포즈만 남았다는 것.

내 몸에 무언가 공급하기 위해 나 아닌 것의 숨을 끊을 때 머리 가죽부터 한 터럭 뿌리까지 남김없이 고맙게, 두렵게 잡숫는 법을 잃었으니 이제 참으로 두려운 것은 내 올라앉은 육중한 접시가 언제쯤 깨끗하게 비워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 도대체 이 무거운, 토막 난 몸을 끌고 어디까지!

- 김선우, 「깨끗한 식사」